

새싹편지 2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3년 02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2월 22일 졸업식이 열린다.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졸업식이 열렸다. 우송예술회관 앞은 학부모와 가족들을 비롯해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식당 안은 이제 곧 학생이라는 딱지를 떼어낼 졸업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뜬 모습으

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1년 4학기 제인 우송대학교의 특성상 8월에 졸업을 많이 하여 이번에는 10명의 학생이 교수님들과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2013학년도 신입생의 첫 번째 캠퍼스 투어



우송대학교는 2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솔스프릿 (Sol-spirit)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솔스프릿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신입생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송대 입학에 대한 자부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송대 학생들의 전문적인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느끼 고 신입생으로서 본인의 비전과 교육목표 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솔스프릿은 각 학과, 전공 별로 특성을 세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유아 교육과가 속한 보건복지대학은 27일, 2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아교육과는 학과를 소개



하고 1기 졸업생과 신입생의 만남을 가지 도록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대학은 플래시몹과 명랑 운동회를 통해 처음 만나는 친구들 간의 어색함을 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캠퍼 스 투어를 하면서 신입생이 캠퍼스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프로그램 덕분인 것인지 신입생들은 첫 만남 에서의 어색했던 모습에서 서로 많이 가까워 진 모습이였다. 또한 대학교에 대한 희 망과 기대로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 차 있었 다. 앞으로도 그 미소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도전 릴레이

달콤한 커피를 만드는 유치원교사 !



1-A 박다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바리스타 무료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3 차로 나뉘는 시간 중 저는 3차 강의 시간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1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업목표가 실기와 필기를 모두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필기는 외국에 있는 AHLA(American Hotel & Lodging Educational Institute)라는 기관에 시험지를 보내 2주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 형식이고, 실기는 AHLA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심사를 보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이었던 솔파인 레스토랑 와인 스테이션실은 넓을 뿐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쓰이는 재료를 넉넉히 제공해주시고 어려움을 법한 강의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위한 특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1 때 바리스타라는 또 다른 꿈을 그렸었는데 뜻밖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른 과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기 중의 바쁨 속에서의 또 다른 도전을 마치고 나니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보람찬 시간이었기에 이 강의를 또 제공된다면 다른 학생들도 경험해보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첫 번째 여행 도전기 !



1-A 김지윤

내가 대학입학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친구들과의 여행이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외박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탓일 지도 모르겠다.

종강하자마자 친구들과 가방을 메고 통영으로 2박 3일 계획을 잡고 떠났다. 동피랑, 중앙시장,

달아공원, 미륵산 케이블카 등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그 중 망일봉의 일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바다 밑으로 해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기분 이었다.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돌아보니 내가 갔던 곳, 그곳의 유명한 것 등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 몸은 고된 여행이었지만, 2박 3일간의 새로운 경험은 나의 2학년 한 해를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해줄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번 여행은 모르는 길은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걷고, 힘들 땀 어디든 앉아서 쉬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번 여행을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냥 수다 "우송대의 이사철"

신학기다. 드디어 신학기가 돌아왔다. 두근두근 하기도, 설레기도, 아쉽기도 한 방학의 끝이 보인다. 이런 방학의 끝에 선 우송대 앞 원룸 밀집지역에서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졸업, 입학식도 아닌데 너도, 나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수첩을 하나씩 집어든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닌다. 더 특이한 것은 길을 가다 보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아주머니들이 붙잡고 물어본다. "학생! 집구해?" 재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쿨' 하게 지나가지만 신입생들은 당황하기도 한다. 신학기와 더불어 분주해지는 이 풍경은 우습기도, 독특하기도 하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신입생들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와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어 기대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자유와 나만의 공간 속에서 충분히 즐기는 것도 자신의 삶에 많은 경험을 주겠지만, 새로이 얻게 된 책임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혜나눔

현명한 미래 설계를 위한 글로벌브랜드트랙 선택하는 법

우송대학교 학생은 2학년이 되면 글로벌브랜드트랙(부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고, 제때 졸업 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12학년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1학년 학생들의 솔직한 견해와 정보를 담아 보았다.

“미래에 관리자나 경영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글로벌 비즈니스다.”

ERP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기업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 기법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경영학원리, 회계원리, 세법의 이해, ERP 인사 등이 있는데 수업만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돼서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다. 경영방식이나 세법에 관심 있으면 수업도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많다. 전문용어를 사용해 처음 배울 때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전공이 아니어서 교수님들도 쉽게 가르쳐주려 하시고, 집중하는 만큼 점점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는 후에 원장선생님이 돼서 유치원을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배워 볼 수 있어 자신이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Mini-MBA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관리자가 지녀야 할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도 좋을 트랙이다. 우리는 회계, 회사 경영, 마케팅을 배울 수 있다. 회계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어려운 면이 있었고, 마케팅은 회계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쉽게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다. 회사 경영 교수님은 강의와 토론을 통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회계 교수님은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경험한 일화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집중하고 이해하기에 좋았던 것 같다. 과제는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렵지 않지만, 전문적으로 다가가기에는 15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공과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좋다. 특히 회계시간에 배우는 세법에 관한 부분은 실생활에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을 열심히 배워두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좋지만, 도전과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로 나가고 싶다면 글로벌커뮤니케이션트랙으로 실력을 키워라.”

영어는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회화수업과 컴퓨터를 이용해 스피킹하는 두 종류의 수업이 있다. 회화수업은 교수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그룹으로 모여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누어보기도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업은 교재가 필요하지 않고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에 대고 문장을 읽으면 인식이 되는 전자책을 이용한다. 원어민 교수님과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전에 들었던 교양 영어 때보다 영어를 더 편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고, 교수님에 따라 친해질 기회가 많은 트랙이다. 스피킹 수업은 혼자 전자책을 이용해 녹음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더디게 가는 듯 느껴지지만, 영어 발음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어는 기초숙련도에 따라 히라나가와 가타카나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기초숙련도가 높은 경우 단어의 한자 표기 등 한자어 표기와 사용에 익숙해 지도록 하는 편이다. 또한, 틈틈이 일본 자체의 문화나 관습, 생활양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다. 교수님 중에는 일본인인 분도 여럿 있고,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오랜 기간 유학을 하셨던 분도 있어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자신이 흥미를 가진 분야에 대해 더욱 잘 알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욱 발전시킬 좋은 기회다. 하지만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일본인 교수님은 대부분 일본어로 강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은 경우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다 보면 듣기 자극으로 일본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여는 경시대회에 참여하면 일본여행이나 어학연수의 기회도 있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사회복지사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다면 글로벌 사회복지사트랙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라.”

사회복지를 선택하면 2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는데 나머지 2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졸업 후에 이수하여 42학점을 채우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돼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나머지 2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사이버 강의로 이수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보면 봉사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비롯해 취업할 때 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

“차별화되고 싶다면 글로벌미디어디자인트랙이다.”

디자인트랙은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과목이다.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애니메이션, 브랜딩디자인 등의 다양한 디자인 강의를 들으며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과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에 따라 강의의 난이도가 달라져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의 가격이 비싼 탓에 강의 시간이 아닌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만 보완된다면 미디어 디자인 트랙에서 얻게 되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쓰일 가정통신문이나 팸플릿을 만드는 등 감각적인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

우송유치원 소식

우송유치원의 졸업식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우송 유치원에서 파란 하늘반의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식에는 파란 하늘반 어린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 선생님, 동생들이 참석하였다.

졸업하는 파란 하늘반 어린이들은 가족과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았고 동생들은 졸업하는 형님들을 위해 꽃과 노래를 선물하며 축하해 주었다.

선생님들은 올해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파란 하늘반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느새 훌쩍 자라 유치

원을 졸업하는 것이 대견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말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3일 토요일, 우송 유치원에서는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린이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입학할 어린이들과 부모님께서 참석하였다.

신입생 어린이들은 새 학기가 되어 생활하게 될 교실을 둘러보고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신발장 및 개인장에 이름과 자신만의 표시를 골라 붙이기도 하였다. 이전에 두 번의 유치원 탐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간식을 먹고, 놀이 후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진 듯하였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 학기부터 어린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유치원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김유현 김지윤 박지원

